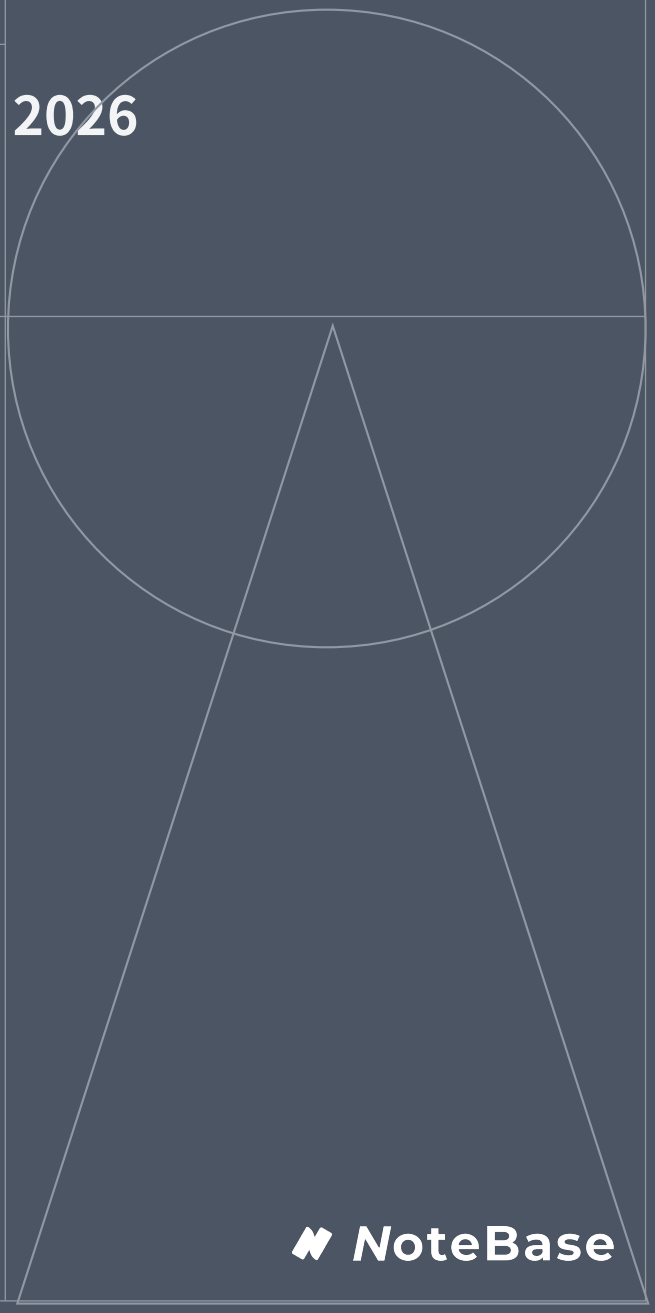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6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6

NoteBase

문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
◯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정확히 표현할 것.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삼갈 것.
◯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것.

<공문서>
□□기술교육원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2026년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는 데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3. 본원은 관내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참여 희망자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② ㉡: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③ ㉢: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이용
④ ㉣: 제출할 수 있도록

정답 3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이용'은 **'효율적인'이 '공공서비스'를 꾸미는지 '이용'을 꾸미는지** 모호하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이므로 원문의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지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원문은 명사구인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가 연결되어 구조가 대등하지 않다.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로 고치면 **'목적어+서술어'의 구조**가 나란히 이어진다. 생활 편의를 증진한다는 목적과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목적도 그대로 전달된다.

② O: ㉡의 문장은 '본원은'으로 시작하므로 교육원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임을 드러내야 한다. 원문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를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로 고치면 '본원은'과 능동 표현인 '제공할'이 호응하고, '프로그램을'은 제공하는 대상이 된다.

③ X: ㉢의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은 '효율적인'이 바로 뒤의 '이용'을 꾸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이용'으로 바꾸면 **서비스 자체가 효율적이라는 뜻**인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뜻인지 모호해진다. 디지털 교육을 통해 시민의 서비스 이용을 돕는 문맥이므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지해야 한다.

④ O: ㉣에서 신청서를 내는 사람은 '참여 희망자'이다. '접수하다'는 기관 등에서 신청서나 서류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나타내고, '제출하다'는 필요한 서류를 내는 행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참여 희망자의 행위에 맞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으로 고친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용언의 어간이 어미와 만나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간은 규칙 활용을, 어간의 형태가 변하면 그 어간은 불규칙 활용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손에 흙이 묻다’에서 ‘묻다’의 어간 ‘묻-’은 어미와 만날 때 ‘묻으니’, ‘묻어서’처럼 활용 전 어간의 형태가 활용 후 어간의 형태와 같다. 따라서 ‘묻다’의 어간이 규칙 활용을 한 것이며, 어간의 종성이 ‘ㄷ’이어서 이때의 ‘묻다’는 ‘ㄷ’ 규칙 용언이 된다. 반면 어간의 종성이 ‘ㄷ’이더라도 ‘안부를 묻다’에서 ‘묻다’의 어간 ‘묻-’은 어미와 만날 때 ‘물으니’, ‘물어서’처럼 어간의 종성 ‘ㄷ’이 ‘ㄹ’로 바뀐다. 따라서 ‘묻다’의 어간이 불규칙 활용을 한 것이며, 어간의 종성이 ‘ㄷ’이어서 이때의 ‘묻다’는 ‘ㄷ’ 불규칙 용언이 된다.

① ‘땅이 굳다’에서 ‘굳다’는 ‘ㄷ’ 규칙 용언이다.
② ‘문을 닫다’에서 ‘닫다’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③ ‘물을 긷다’에서 ‘긷다’는 ‘ㄷ’ 규칙 용언이다.
④ ‘자세가 곧다’에서 ‘곧다’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땅이 굳다'의 '굳다'는 '굳으니, 굳어서'로 활용하여 **어간 끝의 'ㄷ'이 유지된다**. 따라서 'ㄷ' 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어간 끝의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ㄷ' 규칙 활용이고, 'ㄹ'로 바뀌면 'ㄷ' 불규칙 활용이다.

① O: '땅이 굳다'의 '굳다'는 '굳으니, 굳어서'로 활용한다. 어간 '굳-'의 **'ㄷ'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ㄷ' 규칙 용언이다.

② X: '문을 닫다'의 '닫다'는 '닫으니, 닫아서'로 활용하여 어간 '닫-'이 유지된다. 따라서 'ㄷ' 불규칙 용언이 아니라 **'ㄷ' 규칙 용언**이다.

③ X: '물을 긷다'의 '긷다'는 '길으니, 길어서'로 활용한다. 어간 '긷-'의 **'ㄷ'이 'ㄹ'로 바뀌므로** 'ㄷ' 규칙 용언이 아니라 'ㄷ' 불규칙 용언이다.

④ X: '자세가 곧다'의 '곧다'는 '곧으니, 곧아서'로 활용하여 어간 '곧-'이 유지된다. 따라서 'ㄷ' 불규칙 용언이 아니라 **'ㄷ' 규칙 용언**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역 특산물 할인권이나 전통 놀이 체험권 중 적어도 하나를 받는다.
◯ 가영은 이 축제에 참여하였으나 지역 특산물 할인권을 받지 못했다.
◯ 나희는 지역 특산물 할인권과 전통 놀이 체험권 중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① 지역 특산물 할인권을 받지 못한 사람 누구도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②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중 지역 특산물 할인권과 전통 놀이 체험권 둘 다 받는 사람은 없다.
③ 가영과 나희 모두 이 축제에 참여하였다.
④ 가영은 전통 놀이 체험권을 받았지만 나희는 그렇지 않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영은 축제에 참여했고 할인권을 받지 못했으므로, 두 이용권 중 적어도 하나를 받는다는 조건에 따라 **전통 놀이 체험권을 받았다**. 나희는 두 이용권을 모두 받지 못했으므로 **체험권도 받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영은 지역 특산물 할인권을 받지 못했지만 축제에 참여했다. 따라서 가영이 이 진술의 반례이다. 참여자는 두 이용권 중 적어도 하나를 받으면 되므로, **할인권을 받지 못했더라도 체험권을 받으면** 주어진 참여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X: '적어도 하나'는 하나만 받는 경우뿐 아니라 **둘 다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주어진 진술에는 참여자가 두 이용권을 모두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이 없다. 따라서 둘 다 받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③ X: 축제에 참여했다면 두 이용권 중 적어도 하나를 받아야 한다. 나희는 어느 것도 받지 못했으므로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영은 참여했지만 나희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참여했다는 진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O: 가영은 축제에 참여했으므로 할인권이나 체험권 중 적어도 하나를 받았다. 그런데 할인권은 받지 못했으므로 **체험권을 받았음**이 반드시 도출된다. 나희는 두 이용권 중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므로 체험권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가영과 나희의 체험권 수령 여부를 구별한 이 진술은 반드시 참이다.

NoteBase

문 4.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침〉
◯ 서론에는 보고서 작성의 배경 및 필요성을 포함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2장의 하위 항목과 3장의 하위 항목이 각각 대응하도록 할 것.
◯ 결론에는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개요〉
◯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 활성화 방안

1장 서론
1절 ____(가)____
2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률 미흡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의 필요성

2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률 미흡 원인
1절 ____(나)____
2절 활동지원인력의 비전문성에 따른 낮은 만족도

3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 활성화 방안
1절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2절 ____(다)____

4장 결론
1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률 제고
2절 ____(라)____

① (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간 이용률 및 문제점
② (나): 신청 절차의 복잡함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③ (다): 활동지원인력의 충원 및 업무 환경 개선
④ (라): 전문 활동지원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전담 교육기관 설립

정답 3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다)는 '활동지원인력의 비전문성에 따른 낮은 만족도'에 대응해야 하므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담아야 한다. 인력 충원과 업무 환경 개선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서론에서 보고서 작성의 배경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간 이용률 및 문제점'은 제도의 이용 실태와 문제 상황을 보여 주므로 **보고서 작성의 배경**에 해당한다. 이어지는 2절에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서론에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충족한다.

② O: 2장 1절의 (나)는 3장 1절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응하는 원인이어야 한다. 신청 절차의 복잡함은 절차 간소화로,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은 투명한 공개로 개선할 수 있으므로 **원인과 해결 방안이 각각 대응**한다.

③ X: 3장 2절의 (다)는 2장 2절의 '활동지원인력의 비전문성에 따른 낮은 만족도'를 해결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인력의 충원 및 업무 환경 개선'은 인력의 수와 근무 여건에 관한 내용이므로 비전문성이라는 원인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다)는 '활동지원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결론에는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해야 한다. 4장 1절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률 제고'가 기대 효과이므로, 2절의 (라)에는 앞으로 추진할 과제가 들어가야 한다. '전문 활동지원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전담 교육기관 설립'은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할 **향후 과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다. 이 중 12개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수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이에 비해 나머지 수천 개의 언어는 사용자 수가 각각 5천 명이 되지 않고, 특히 그 가운데 약 1천 개의 언어는 사용자 수가 각각 10여 명에 불과하여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특정 언어가 확산해 가면서 소수 언어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언어의 확산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원래 많은 경우이다. 중국어가 대표적인데, 이런 언어들은 중심지에 거대한 인구 집단이 있고 이들이 인근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확산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인근 지역이 아닌 원격지로 언어가 확산된 경우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대 세계의 언어 분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유형이다.

중국어나 힌디어 등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주로 근대 이전에 확산되었으며 문화나 종교 등이 확산의 동력이 되었다. 대개 육지를 통해 이루어진 이러한 언어 확산은 그 속도와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근대 이후 해양 이동을 통해 확산된 유럽 언어들은 대륙 단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이러한 확산은 무력에 근거한 소위 침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① 중국어는 문화나 종교 등을 동력으로 하여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② 유럽 언어들은 무력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③ 12개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나머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많다.

④ 힌디어는 언어 확산의 두 가지 유형 중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인근 지역'은 **'원격지'**로 고쳐야 한다. 글에서 유럽 언어들은 근대 이후 해양 이동을 통해 먼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방식은 무력에 근거한 침투였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마지막 문단에서 중국어와 힌디어는 주로 근대 이전에 확산되었으며, **문화나 종교 등이 확산의 동력**이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중국어가 문화나 종교 등을 동력으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는 내용은 글과 일치한다.

② X: 둘째 문단에서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은 인근 지역이 아닌 **원격지로 확산된 두 번째 유형**으로 제시된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유럽 언어들이 근대 이후 해양 이동을 통해 대륙 단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설명한다. '무력을 통해 침투하는 방식'은 글과 일치하지만, 확산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한 부분은 '원격지'로 고쳐야 한다. 인근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확산된 것은 중국어가 대표하는 첫 번째 유형이다.

③ O: 첫 문단에서 12개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수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언어들의 사용자 수를 합친 인구는 나머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많다.

④ O: 마지막 문단은 중국어와 힌디어를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언어로 명시한다. 둘째 문단에서 첫 번째 유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원래 많고, 중심지의 거대한 인구 집단이 인근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확산되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NoteBase

문 6. (가)~(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이러한 전실 자식을 가정에서 축출하기 위해 계모는 전실 자식에게 유교적 관념에 어긋나는 누명을 씌워 모함한다. 전실 자식의 억울한 누명은 여성의 경우 부정한 행실이, 남성의 경우 가장에 대한 음해가 일반적이다.
(나) 가정 밖으로 이탈한 전실 자식은 여성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남성의 경우 가출과 유랑을 하는 등 고난을 겪는다.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우연히 환상적 사건을 겪고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게 된다.
(다) 계모형 가정소설은 간악한 계모가 착한 전실 자식을 모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들 작품에서 전실 자식은 새롭게 편입된 계모보다 가정에서의 위상이 확고하며, 집안에서의 평판도 상당히 좋다.
(라) 계모는 모함에 성공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위상이 확고해진다. 반면 전실 자식은 그 위상이 흔들려서 가정 내에서 곤경에 처하고 가정 밖으로 이탈하게 된다.

① (나) - (가) - (라) - (다)
② (나) - (라) - (가) - (다)
③ (다) - (가) - (라) - (나)
④ (다) - (라) - (가) - (나)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의 '이러한 전실 자식'은 (다)에서 설명한 **가정 내 위상이 확고한 전실 자식**을 가리킨다. 계모의 모함이 성공한 결과를 설명하는 (라) 뒤에, **가정 밖으로 이탈한 뒤의 고난**을 다루는 (나)가 이어진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다) → (가) → (라) → (나)

(다): 계모형 가정소설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계모에게 모함을 당할 전실 자식의 처지를 설명한다. 다른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물 관계와 상황을 처음 제시하므로 글의 시작에 놓인다.

(가): 첫머리의 **'이러한 전실 자식'**은 (다)에 나온, 계모보다 가정 내 위상이 확고하고 평판도 좋은 전실 자식을 가리킨다. 이어 계모가 이들을 축출하려고 유교적 관념에 어긋나는 누명을 씌우는 방법을 설명하므로 (다) 다음에 온다.

(라): **'모함에 성공함으로써'**는 (가)에서 설명한 모함의 결과를 나타낸다. 계모의 위상은 확고해지는 반면, 전실 자식의 위상은 흔들리고 결국 가정 밖으로 이탈하게 되므로 모함의 방법을 설명한 (가) 뒤에 이어진다.

(나): 첫머리의 **'가정 밖으로 이탈한 전실 자식'**은 (라)의 마지막 상황을 이어받는다.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남성은 가출과 유랑을 하는 등 고난을 겪으며, 이후 환상적 사건을 통해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는 내용을 설명하므로 마지막에 놓인다.

NoteBase

문 7.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은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된 이의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다. 첫 구절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 관동 팔백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는, 조정에서 물러나 시골에 머물고 있던 자신을 잊지 않고 강원도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을 제수한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렇게 들뜬 정서는 작품 안에서 춘천의 소양강을 지날 때, “고신거국에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라고 한 구절에서 급변한다. 지금까지의 정서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게 자신을 “고신거국”, 즉 ‘㉠도성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철을 포함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내직을 중시하고 외직을 천시했기 때문에, 조정의 ㉡내직에 복무했다가 지역의 외직으로 가게 되면 좌천되어 유배 가는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정철은 정치적 쟁투가 첨예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임금 곁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충언이 더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철은 승지에서 관찰사가 되어 품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성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라고 표현한 것이다.

정철의 이러한 감정은 이어지는 구절인 “회양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 급장유의 풍채를 고쳐 아니 볼 게이고”에서는 과거의 인물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 급장유는 중국 한나라 때 인물로, 황제에게 자주 직간을 했다가 변방인 회양 태수로 좌천되었다. 급장유 역시 정철과 동일한 정치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러한 급장유를 소환하여 ㉣변방으로 밀려난 데에서 오는 자신의 소외감을 부각한 것이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 하늘에 추밀어 무슨 일을 사뢰려고 /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구절에는 그가 조정에 있을 때 직간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유배를 오게 되었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을시고 망고대”는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드높은 절개를, “외로울사 혈망봉이”는 그로 인해 임금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외로운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①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는 승지로 복귀하게 된 정철의 들뜬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② “고신거국”은 강원도 관찰사로 가게 된 것을 좌천되어 유배 갔다고 여기는 정철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③ “급장유”는 외직으로 밀려난 데에서 오는 소외감을 부각하기 위해 소환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④ “높을시고 망고대”는 임금으로부터 정철이 멀어지게 된 이유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는 조정에서 물러나 시골에 머물던 상태를 나타낸다. 이어지는 구절의 들뜬 마음은 승지 복귀가 아니라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된 데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 문단에 따르면 정철은 조정에서 물러나 시골에 머물다가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는 벼슬을 받기 전의 처지를 나타내며, 이어지는 '관동 팔백리에 방면을 맡기시니'와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에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드러난다. 따라서 '승지로 복귀하게 된'은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된'**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고신거국'은 도성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라는 뜻이다. 정철은 승지에서 관찰사가 되어 품계가 올랐지만, 내직을 중시하고 외직을 천시하는 인식 때문에 외직으로 가는 일을 **좌천되어 유배 가는 것처럼 여겼다**. 임금 곁을 떠나 자신의 충언이 더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리라는 생각도 외로움을 더했다. 이 표현은 실제 품계의 하락보다 정철이 느낀 처지에 초점을 둔다.

③ O: 지문에서 급장유는 황제에게 자주 직간했다가 변방인 회양 태수로 좌천된 인물이다. 정철은 급장유의 정치적 경험에 자신의 처지를 겹쳐 보면서, **외직으로 밀려난 데서 오는 소외감**을 부각한다.

④ O: 마지막 문단은 '높을시고 망고대'를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드높은 절개**에 대응시킨다. 정철은 조정에서 직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임금 곁에서 멀어졌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망고대는 멀어지게 된 이유인 굽히지 않는 신념을, 혈망봉은 그 결과인 외로운 처지를 드러낸다.

NoteBase

문 8. 윗글의 ㉠~㉤ 중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은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된 이의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다. 첫 구절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 관동 팔백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는, 조정에서 물러나 시골에 머물고 있던 자신을 잊지 않고 강원도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을 제수한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렇게 들뜬 정서는 작품 안에서 춘천의 소양강을 지날 때, “고신거국에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라고 한 구절에서 급변한다. 지금까지의 정서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게 자신을 “고신거국”, 즉 ‘㉠도성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철을 포함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내직을 중시하고 외직을 천시했기 때문에, 조정의 ㉡내직에 복무했다가 지역의 외직으로 가게 되면 좌천되어 유배 가는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정철은 정치적 쟁투가 첨예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임금 곁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충언이 더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철은 승지에서 관찰사가 되어 품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성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라고 표현한 것이다.

정철의 이러한 감정은 이어지는 구절인 “회양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 급장유의 풍채를 고쳐 아니 볼 게이고”에서는 과거의 인물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 급장유는 중국 한나라 때 인물로, 황제에게 자주 직간을 했다가 변방인 회양 태수로 좌천되었다. 급장유 역시 정철과 동일한 정치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러한 급장유를 소환하여 ㉣변방으로 밀려난 데에서 오는 자신의 소외감을 부각한 것이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 하늘에 추밀어 무슨 일을 사뢰려고 /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구절에는 그가 조정에 있을 때 직간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유배를 오게 되었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을시고 망고대”는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드높은 절개를, “외로울사 혈망봉이”는 그로 인해 임금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외로운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변방'은 임금과 조정에서 멀어진 **주변적 공간**을 뜻한다. '도성', '내직', '임금 곁'이 임금 가까이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중심부를 가리키는 것과 대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비교 기준은 각 표현이 문맥에서 임금·조정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이다. 단순한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임금 가까이에서 충언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처지인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① ㉠ '도성을': 임금과 조정이 있는 곳이다. '도성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라는 표현은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정철의 처지를 드러내므로, 도성은 그가 떠나온 중심 공간에 해당한다.

② ㉡ '내직에': 조정에서 맡는 관직을 뜻한다. 지문에서는 지역의 외직과 대비되며, 내직에서 외직으로 가는 일을 좌천처럼 여겼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내직은 **조정 안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③ ㉢ '임금 곁을': 임금 가까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위치를 뜻한다. 정철이 그곳을 떠나면서 충언이 더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에서, **임금에게 직접 충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④ ㉣ '변방으로': 임금과 조정이 있는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뜻한다. 급장유의 좌천 경험을 정철 자신의 처지와 연결하고, 그곳으로 '밀려난' 데서 오는 소외감을 드러내므로 **정치의 중심에서 배제된 주변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은 임금과 조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참여의 공간이나 자리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은 그 중심에서 밀려난 곳을 가리키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이다.

NoteBase

문 9.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 이론에 대한 입증은 해당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검증과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는 반증으로 나뉜다. 입증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누군가가 이론을 제안하면 ㉠ 그것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을 현상을 예측한 후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관찰 혹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그 결과 ㉡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제안된 이론은 반증된다. 그렇다면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 그것은 참이라고 검증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이론이 아직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니, 우리는 ㉣ 그것이 참이라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지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과학 이론의 경우와 같이, 법칙이 참이라고 밝히는 것과 거짓이라고 밝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든 F는 G이다'와 같은 보편진술 형식의 법칙을 생각해보자. 과학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법칙은 이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법칙이 거짓이라는 것은 'F이면서 G가 아닌 것'을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F이면서 G인 것'을 아무리 많이 관찰하더라도 이 법칙이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래의 언젠가 혹은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F이면서 G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편진술은 거짓이라고 반증할 수는 있지만, 참이라고 검증할 수는 없다.

①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을 관찰하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반증된다.

②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그 이론은 반증되지 않는다.

③ 과학 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면 그 이론이 참일 확률은 높아진다.

④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밝힐 수 있지만 참이라는 것은 밝힐 수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는 **흰색이 아닌 고니 하나**를 관찰하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다. 반면 흰 고니를 아무리 많이 관찰해도 아직 관찰하지 못한 고니 중 반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에서 '모든 F는 G이다'를 반증하는 사례는 'F이면서 G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를 반증하려면 **고니이면서 흰색이 아닌 것**을 관찰해야 한다.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은 이 진술이 대상으로 삼는 고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례가 아니다.

② X: 첫 문단은 이론에서 예측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이론은 반증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선지의 '반증되지 않는다'를 '반증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첫 문단은 예측한 현상이 발생해도 이론이 참이라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지문에 따르면 실험 결과가 예측과 일치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론이 아직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참일 확률은 높아진다'는 지문의 입장과 어긋난다.

④ O: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는 지문의 '모든 F는 G이다'에 해당하는 보편진술이다. 흰색이 아닌 고니가 하나라도 관찰되면 '모든'이라는 조건에 어긋나므로 거짓임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관찰한 고니가 모두 흰색이어도 **미래나 아직 관찰하지 못한 곳에 반례가 있을 가능성**이 남으므로 참임을 확정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10. 윗글의 ㉠~㉣ 중 지시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과학 이론에 대한 입증은 해당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검증과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는 반증으로 나뉜다. 입증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누군가가 이론을 제안하면 ㉠ 그것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을 현상을 예측한 후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관찰 혹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그 결과 ㉡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제안된 이론은 반증된다. 그렇다면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 그것은 참이라고 검증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이론이 아직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니, 우리는 ㉣ 그것이 참이라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지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과학 이론의 경우와 같이, 법칙이 참이라고 밝히는 것과 거짓이라고 밝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든 F는 G이다'와 같은 보편진술 형식의 법칙을 생각해보자. 과학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법칙은 이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법칙이 거짓이라는 것은 'F이면서 G가 아닌 것'을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F이면서 G인 것'을 아무리 많이 관찰하더라도 이 법칙이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래의 언젠가 혹은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F이면서 G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편진술은 거짓이라고 반증할 수는 있지만, 참이라고 검증할 수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그것'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예측한 현상**을 가리킨다. 나머지 '그것'은 현상을 예측하거나 참·거짓을 판단하는 대상인 **제안된 이론**을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 **제안된 이론**을 가리킨다. 누군가가 이론을 제안하면 '그것으로부터' 관찰 가능한 현상을 예측한다고 했으므로, 예측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앞에서 제안한 이론이다.

② ㉡: **예측한 현상**을 가리킨다. 앞 문장에서 예측한 현상의 실제 발생 여부를 관찰이나 실험으로 확인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를 근거로 제안된 이론을 반증한다.

③ ㉢: **제안된 이론**을 가리킨다. 예측한 현상의 발생이 확인되었을 때 '참이라고 검증되는가'를 묻는 대상은 그 현상을 예측한 이론이다. 바로 뒤에서 '그 이론이 아직 반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 지시 관계를 뒷받침한다.

④ ㉣: **제안된 이론**을 가리킨다. 바로 앞의 '그 이론이 아직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어 받아, 그 이론이 참이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지시 대상을 비교하면 ㉠·㉢·㉣은 제안된 이론을, ㉡은 그 이론에서 예측한 현상을 가리키므로 ㉡만 나머지와 다르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A부서에서는 갑, 을, 병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 갑이 출장을 간다.
◯ 을이 휴가를 가고 갑이 출장을 간다.
◯ 병이 휴직을 하거나 갑이 출장을 간다.
세 예측 중 하나만 그르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것으로 이후에 밝혀졌다.

① 갑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② 을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
③ 병이 휴직을 한다.
④ 병이 휴직을 하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갑이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첫째와 둘째 예측이 함께 거짓이 되므로, 갑은 출장을 간다. 이때 셋째 예측도 참이므로 둘째 예측만 거짓이어야 하며, **을은 휴가를 가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을이 휴가를 가고 갑이 출장을 간다'는 두 내용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다. 갑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첫째 예측뿐 아니라 둘째 예측도 거짓이 되어, 하나만 거짓이라는 조건에 어긋난다. 따라서 갑은 출장을 간다. 셋째 예측의 '하거나'는 두 내용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성립하므로, 갑이 출장을 간다는 사실만으로 셋째 예측도 참이다. 결국 둘째 예측만 거짓이어야 한다.

① X: 갑이 출장을 가지 않으면 첫째와 둘째 예측이 모두 거짓이 된다.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갑은 **출장을 간다**.

② O: 둘째 예측은 '을이 휴가를 간다'와 '갑이 출장을 간다'를 모두 충족해야 참이다. 갑이 출장을 가는 것은 참인데 둘째 예측은 거짓이므로, **을이 휴가를 간다는 내용이 거짓**이어야 한다. 따라서 을은 휴가를 가지 않는다.

③ X: 셋째 예측은 갑이 출장을 가는 것만으로 이미 참이므로, **병의 휴직 여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병이 휴직하지 않더라도 첫째와 셋째 예측은 참이고 둘째 예측만 거짓일 수 있으므로, 병이 휴직한다고 반드시 말할 수 없다.

④ X: 병이 휴직하더라도 갑이 출장을 가므로 셋째 예측은 여전히 참이다. 갑이 출장을 가고 을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면 병이 휴직하는 경우에도 둘째 예측만 거짓이므로, 병이 **휴직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문 12.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빛의 파장 차이를 구별하여 색을 분별하는 시각적인 감각을 색각이라고 한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인 추상체가 세 종류 있다. S-추상체, M-추상체, L-추상체가 그것으로, 이 추상체들은 각각 빛의 특정한 파장에 반응하는데, 추상체의 반응이 서로 가감된 결과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하게 된다. 이 상태를 정상색각이라고 한다. 추상체의 종류가 부족하거나 추상체의 화학적 조성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면 정상색각에 비해 인지할 수 있는 색각 영역이 확연히 감소된다. 이 상태를 이상색각이라고 한다.

이상색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세 종류의 추상체가 모두 있으나 빛에 대한 반응 방식이 정상색각과 다른 경우를 3색형 이상색각이라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색약이라 한다. 두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2색형 이상색각은 부분색맹으로,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1색형 이상색각은 전색맹으로 ㉠불린다. 흔히들 이상색각에 속하는 이들에 대해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을 가시광선 영역 밖의 흑백으로만 인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색맹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할 수 있다. 단지 남들과 다르게 인지할 뿐이다.

예컨대, 부분색맹 중 L-추상체만 없는 경우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노란색과 파란색으로만 인지하게 된다. 이 경우 빨간색과 초록색 모두 노란색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두 색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이를 적록색맹이라 부르는데, 빨간색과 초록색 모두 노란색으로 인지되기는 하나 채도나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므로 신호등에 나타나는 교통신호는 구별할 수 있다.

이상색각은 남성에게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상색각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실려 있는데 남성은 X 염색체가 한 개뿐 이어서 해당 유전자가 있으면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성 인구의 약 8%가 이상색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약 0.5%만이 이상색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상색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색약이다.

① 이상색각을 가진 사람은 정상색각을 가진 사람보다 추상체의 종류가 적다.

② 부분색맹 중 L-추상체만 없는 사람은 신호등에 나타나는 교통신호를 구별할 수 없다.

③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사람은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할 수 없다.

④ 남성 인구의 약 8%는 두 종류의 추상체를 가진 이상색각에 속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경우는 **전색맹**이다. 지문은 전색맹을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하므로, 전색맹은 **색을 인지할 수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이상색각에는 추상체의 종류가 부족한 경우뿐 아니라 화학적 조성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색약인 3색형 이상색각은 **세 종류의 추상체가 모두 있으나** 빛에 대한 반응 방식이 정상색각과 다르다. 따라서 이상색각을 가진 사람이 모두 정상색각을 가진 사람보다 추상체의 종류가 적은 것은 아니다.

② X: 셋째 문단에 따르면 L-추상체만 없는 사람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모두 노란색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두 색의 **채도나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므로** 신호등에 나타나는 교통신호는 구별할 수 있다. 선지의 '구별할 수 없다'는 '구별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둘째 문단에서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1색형 이상색각을 전색맹이라고 하였다. 이어 '전색맹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문맥에서 **전색맹은 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사람은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할 수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X: 마지막 문단의 약 8%는 **이상색각 전체**에 해당하는 남성 인구의 비율이다. 두 종류의 추상체를 가진 2색형 이상색각만의 비율이 아니다. 또한 이상색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세 종류의 추상체를 모두 가진 색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종류의 추상체를 가진 이상색각'을 '이상색각'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3.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빛의 파장 차이를 구별하여 색을 분별하는 시각적인 감각을 색각이라고 한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인 추상체가 세 종류 있다. S-추상체, M-추상체, L-추상체가 그것으로, 이 추상체들은 각각 빛의 특정한 파장에 반응하는데, 추상체의 반응이 서로 가감된 결과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하게 된다. 이 상태를 정상색각이라고 한다. 추상체의 종류가 부족하거나 추상체의 화학적 조성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면 정상색각에 비해 인지할 수 있는 색각 영역이 확연히 감소된다. 이 상태를 이상색각이라고 한다.

이상색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세 종류의 추상체가 모두 있으나 빛에 대한 반응 방식이 정상색각과 다른 경우를 3색형 이상색각이라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색약이라 한다. 두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2색형 이상색각은 부분색맹으로,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1색형 이상색각은 전색맹으로 ㉠불린다. 흔히들 이상색각에 속하는 이들에 대해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을 가시광선 영역 밖의 흑백으로만 인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색맹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인지할 수 있다. 단지 남들과 다르게 인지할 뿐이다.

예컨대, 부분색맹 중 L-추상체만 없는 경우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을 노란색과 파란색으로만 인지하게 된다. 이 경우 빨간색과 초록색 모두 노란색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두 색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이를 적록색맹이라 부르는데, 빨간색과 초록색 모두 노란색으로 인지되기는 하나 채도나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므로 신호등에 나타나는 교통신호는 구별할 수 있다.

이상색각은 남성에게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상색각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실려 있는데 남성은 X 염색체가 한 개뿐 이어서 해당 유전자가 있으면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성 인구의 약 8%가 이상색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약 0.5%만이 이상색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상색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색약이다.

① 갑작스러운 바람에 낙엽이 불려 날아갔다.

② 그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 갔다.

③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④ 새참으로 마시는 탁주는 농민들에게 농주라 불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불린다'는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뜻이다. 탁주가 '농주라 불렸다'는 표현도 탁주를 '농주'라는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의미이다.

NoteBase

공통 해설

문맥상 ㉠은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 1색형 이상색각을 '전색맹'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뜻이다. '전색맹으로 불린다'를 '전색맹이라고 한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유지된다. 탁주가 '농주라 불렸다'는 문장 역시 **대상을 특정한 이름으로 일컫는** 경우이므로 ㉠과 의미가 같다.

나머지 문장의 '불리다'에는 이러한 명명의 의미가 없다. 낙엽이 바람에 '불려' 날아간 것은 바람의 힘을 받아 움직인다는 뜻이고, 경찰서에 '불려 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오라는 요구를 받아 갔다는 뜻이다. 참석자의 이름이 '불렸다'는 것은 참석자의 이름을 소리 내어 말했다는 뜻이다. 특히 **이미 있는 이름을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특정한 이름으로 일컫는 것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방향 반의어는 역의 관계, 역행 관계, 대척 관계 등으로 구분된다. 역의 관계는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의 짝이다. 즉 반의어 짝을 X, Y라고 할 때 ‘A가 B의 X다’가 성립하면 ‘B가 A의 Y다’도 성립한다. 가령, ‘A가 B의 아래다’가 성립하면 ‘B가 A의 위다’도 성립하므로 ‘아래’와 ‘위’는 역의 관계에 있다.
다음으로 역행 관계는 ‘집에서 학교에 가다’와 ‘학교에서 집에 오다’에서 ‘감’과 ‘옴’의 관계처럼,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역행 관계는 움직임이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움직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상태 변화는 서로 반대인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척 관계는 ‘수업의 시작’과 ‘수업의 끝’에서 ‘시작’과 ‘끝’의 관계처럼, 두 단어가 일정한 대상이나 사건을 구성하는 양극단 간의 관계를 말한다. 지구의 대척점인 ‘북극점’과 ‘남극점’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공의 부피와 관련하여 ‘팽창’과 ‘수축’의 관계는 (가)이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나)이며, 100 m 달리기에서 ‘출발선’과 ‘결승선’의 관계는 (다)이다.

① (가): 역행 관계, (나): 대척 관계, (다): 역의 관계
② (가): 역행 관계, (나): 역의 관계, (다): 대척 관계
③ (가): 역의 관계, (나): 대척 관계, (다): 역행 관계
④ (가): 역의 관계, (나): 역행 관계, (다): 대척 관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팽창'과 '수축'은 부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역행 관계이다. '스승'과 '제자'는 두 사람의 자리를 바꾸어 설명하는 역의 관계이고, '출발선'과 '결승선'은 한 달리기 구간의 양극단을 이루는 대척 관계이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역행 관계: '팽창'은 공의 부피가 커지는 변화이고, '수축'은 작아지는 변화이다. 같은 대상의 부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므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나 상태 변화를 뜻하는 역행 관계에 해당한다.

(나) 역의 관계: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다'가 성립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다'도 성립한다. **두 사람의 자리를 바꾸면 대응하는 관계어도 바뀌므로** 역의 관계이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상태가 변하는 역행 관계와 구별된다.

(다) 대척 관계: 100 m 달리기에서 출발선은 달리기가 시작되는 경계이고, 결승선은 끝나는 경계이다. 두 선은 **하나의 달리기 구간을 이루는 양극단**이므로 대척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는 역행 관계, (나)는 역의 관계, (다)는 대척 관계이며, 이는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의 ㉠~㉣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 형제의 동화는 독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전 세계 온갖 대중매체에 활용되어 왔다. 그림 형제의 동화가 전 세계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 그런데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그림 형제는 구전 민담을 활용해서 동화를 창작했다. 그 과정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아이에게 해로울 만한 이야기는 아예 선택하지 않았고, ㉡ 선택한 이야기 중에서도 해로울 것 같은 대목들을 삭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르주아 계급의 도덕률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삽입했다. 결국, 그림 형제의 동화는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의식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은 안데르센의 동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안데르센은 ㉢ 신분 상승 소재를 유달리 선호했던 작가로, 하층민의 신분이 상승하는 소재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소재가 자주 등장한 이유는 그가 지배 계급의 도덕적 가치관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 지배 계급의 도덕률을 해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① ㉠: 그러므로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② ㉡: 선택한 이야기 중에서 해로울 것 같은 대목들은 수용했다
③ ㉢: 신분 상승 소재에 유달리 비판적인 작가로
④ ㉣: 지배 계급의 도덕률을 옹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안데르센이 '지배 계급의 도덕적 가치관을 지향했다'는 앞 문장에 따르면, 그의 작품은 그 도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옹호하는 구조**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의 '해체하는'을 '옹호하는'으로 바꾸면 문맥이 자연스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앞부분은 그림 형제의 동화가 널리 읽혀 아이들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의식을 강화했다는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므로, '그러므로'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는 수정은 어울리지 않는다. 원문의 '그런데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를 유지해야 한다.

② X: 그림 형제는 부르주아 계급의 아이에게 해로울 만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았고, 선택한 이야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어지는 '그 자리에'는 해로운 대목을 없앤 자리에 도덕률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넣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용했다'가 아니라 원문의 **'삭제했다'**가 문맥에 맞는다.

③ X: 바로 뒤의 '하층민의 신분이 상승하는 소재를 즐겨 사용하였다'가 안데르센의 소재 선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즐겨 사용하였다'와 호응하는 표현은 **'선호했던'**이므로, 이를 '비판적인'으로 바꾸면 뒤의 설명과 어긋난다. 원문의 '신분 상승 소재를 유달리 선호했던 작가로'를 유지해야 한다.

④ O: 앞 문장은 안데르센이 '지배 계급의 도덕적 가치관을 지향했기 때문'에 신분 상승 소재를 자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그 가치관을 추구했다는 설명에 이어 그 도덕률을 무너뜨린다는 '해체하는'이 나오면 의미가 충돌한다. **'옹호하는'**으로 고치면 지배 계급의 도덕률을 지지한다는 뜻이 되어 앞 문장의 설명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행동을 의도하고 그 의도가 원인이 되어 행동이라는 결과가 일어난다고 여긴다. 의도는 행동의 원인인가?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은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는 그 행동이 일어나기 약 0.5초 전에 발생하는 반면, 그 행동과 관련한 뇌의 무의식적 변화 즉 '준비전위'는 약 0.85초 전에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행동을 의도하기 약 0.35초 전에 행동과 관련한 준비전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리벳 실험을 통해, 심리학자 수전 블랙모어는 의도가 행동의 원인이라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생한다고 말한다. 즉, 행동을 의도하기 전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인 준비전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용이 우리 행동의 원인이지 우리의 의도가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행동이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ㄱ. 행동에 대한 의도가 항상 준비전위 이후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을 강화한다.
ㄴ. 준비전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연관된 신호인지 알 수 없다는 연구 결과는 ㉠을 강화한다.
ㄷ.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준비전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을 약화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준비전위가 **의도보다 먼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의도가 행동의 원인이라는 설명보다 뇌의 물리적 작용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반면 **준비전위가 있어도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준비전위와 행동의 인과적 연결을 의심하게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은 의식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발생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인 준비전위가 행동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각 연구 결과가 이 주장의 근거를 보강하는지, 준비전위와 행동의 연결을 약하게 하는지 살펴야 한다.

ㄱ. O: ㉠의 근거는 행동에 대한 의도가 생기기 전에 준비전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의도가 항상 준비전위 이후에 생긴다면, 의도가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낮아지고 **의도에 앞선 뇌의 물리적 작용**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힘을 얻는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주장의 근거를 보강하므로 강화에 해당한다.

ㄴ. X: 준비전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연관된 신호인지 알 수 없다면, 그 준비전위를 **특정 행동의 원인으로 연결할 근거가 약해진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ㄷ. O: 준비전위가 발생했는데도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준비전위의 발생이 곧 행동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준비전위가 행동을 일으킨다는 설명**의 설득력을 낮추므로 ㉠을 약화한다.

적절한 평가는 ㄱ,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한국어 문법 단위 중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기도 하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로 나누기도 한다.

먼저, 명사, 대명사, 수사 등과 같이 다른 형태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용언의 어간, 어미, 조사 등과 같이 다른 요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다음으로, 명사, 부사, 용언의 어간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어휘 형태소라고 하고, 조사나 어미 등과 같이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 한다.

가령, '산에는 밤꽃이 가득 피었다.'라는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산', '에', '는', '밤', '꽃', '이', '가득', '피-', '-었-', '-다'가 된다. 여기에서 '산', '밤', '꽃', '가득'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가). '에', '는', '이', '-었-', '-다'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므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 형태소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피-'는 다른 요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구체적인 동작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나).

① (가):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어휘 형태소이다

② (가): 자립 형태소이고 문법 형태소가 아니다
(나):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③ (가):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문법 형태소이다

④ (가):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문법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도 어휘 형태소도 아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피-'는 혼자 쓰일 수 없지만 꽃이 피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어휘 형태소**이다. 자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 문법적 기능만 지닌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자립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이다. '산', '밤', '꽃', '가득'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또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 등에 관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어휘 형태소이다.

(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어휘 형태소이다. '피-'는 용언의 어간으로, '피었다'처럼 어미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그러나 꽃이 피는 동작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므로 **어휘 형태소**이다.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와 구별된다.

두 빈칸을 이와 같이 채운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온: 오늘 아침에 자율주행차로 회사에 가다 사고가 났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운전자가 시스템에 주행을 맡긴 순간부터 시스템 자체가 운전자를 대신한 것이고, 따라서 사고 주체는 시스템이 되지. 시스템의 판단 착오와 알고리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까 그것을 만들어 판매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해.
민준: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다면 가온의 말이 맞지.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해지는 것은 불가능해. 이 불완전한 기계를 도로에 끌고 나온 건 운전자이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 오류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제조사 측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을 항상 주시하고 비상시에 개입하기를 적극 요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야. 사고는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이 요청을 무시해서 발생한 것이니까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해.
윤호: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하면 민준의 말은 부당해. 시스템이 수만 번의 연산 끝에 저지른 오류를 인간이 찰나의 순간에 바로잡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불가능해.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제조물 결함의 영역이고,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기계적 메커니즘에 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 역시 기업이 지는 게 타당해.
상현: 윤호는 기술적 한계를 근거로 운전자를 두둔하지만 사고 관련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따라 검토될 수밖에 없어. 우리의 법체계에서 주체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로 제한하고 있어. 그런데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라서 어떤 종류의 주체도 될 수 없지. 따라서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사고 주체이면서 동시에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이 맞아.

①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 사고 주체라는 점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②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가온은 동의하지 않지만 민준은 동의한다.

③ 운행 중 발생하는 자율주행차의 오류에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민준은 동의하지만 윤호는 동의하지 않는다.

④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윤호는 동의하지만 상현은 동의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두 사람의 입장을 서로 바꾸어 설명했다. 윤호는 사고 원인을 제조물 결함에서 찾아 **기업의 책임**을 주장하고, 상현은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책임 주체라며 **운전자의 책임**을 주장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온은 운전자가 시스템에 주행을 맡긴 순간부터 시스템이 운전자를 대신하므로 사고 주체도 시스템이라고 본다. 반면 상현은 시스템을 **주체가 될 수 없는 도구**로 보고,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사고 주체라고 주장한다.

② O: 가온은 사고가 시스템의 판단 착오와 알고리즘 오류로 발생했다고 보므로 운전자에게 사고 원인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민준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와 비상시 개입 요청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므로,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대처 의무 불이행**에서 찾는다.

③ O: 민준은 운전자가 언제든 시스템 오류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으로 오류에 대처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반면 윤호는 시스템이 수만 번의 연산 끝에 저지른 오류를 인간이 찰나의 순간에 바로잡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능하다**고 보므로, 민준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④ X: 윤호는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제조물 결함에 있으므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현은 법적 주체에 관한 자신의 기준을 근거로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사고 주체이자 책임 주체라고 본다. 따라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윤호는 동의하지 않고, 상현은 동의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갑, 을, 병이 중국, 일본, 태국 중 한 나라를 택하여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 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가 본 나라는 배제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알려진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갑이 가 본 나라는 세 나라 중 중국을 포함해 두 나라뿐이다.
◯ 을은 갑이 가 본 나라에 가 본 적이 없다.
◯ 병은 일본에 가 본 적이 있고 태국에 가 본 적은 없다.

① 태국은 배제된다.
② 중국은 배제되지 않는다.
③ 세 나라 중 을이 가 본 나라가 있다면, 일본은 배제된다.
④ 세 나라 중 병이 가 본 나라가 하나뿐이라면, 중국은 배제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을이 세 나라 중 한 나라라도 가 보았다면, 갑이 가 본 두 나라와 합쳐 세 나라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일본은 **갑이나 을 중 한 사람과 병**이 가 본 나라가 되어 배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두 사람 이상이 가 본 나라만 배제한다. 갑이 가 본 나라는 '중국·일본' 또는 '중국·태국'이며, 을은 갑이 가 본 어느 나라에도 가 본 적이 없다.

① X: 병은 태국에 가 본 적이 없고, 을은 갑이 가 본 나라에 가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갑과 을이 모두 태국에 가 본 경우도 불가능하다. 태국에 가 본 사람은 **많아야 한 명**이므로 태국은 배제되지 않는다.

② X: 갑은 중국에 가 보았고, 을은 갑이 가 본 중국에 가 본 적이 없다. 중국의 배제 여부는 **병이 중국에 가 보았는지**에 달려 있다. 병도 중국에 가 보았다면 갑과 병 두 사람이 가 본 나라가 되어 배제되므로, 중국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O: 갑이 중국을 포함한 두 나라에 가 보았으므로, 을이 가 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갑이 가 보지 않은 나머지 한 나라이다. 을이 일본에 가 보았다면 을과 병이 일본에 가 보았으므로 일본은 배제된다. 을이 태국에 가 보았다면 갑이 가 본 두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므로, 갑과 병이 일본에 가 본 셈이다. **어느 경우든 일본에 가 본 사람이 두 명 이상**이므로 일본은 배제된다.

④ X: 병은 일본에 가 본 적이 있으므로, 세 나라 중 가 본 나라가 하나뿐이라면 그 나라는 일본이다. 이때 병은 중국에 가 본 적이 없고, 을도 갑이 가 본 중국에 가 본 적이 없다. 중국에 가 본 사람은 **갑 한 명뿐**이므로 중국은 배제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갑 ~ 병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 얼룩말의 줄무늬는 포식자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과 혼란 전략이다. 줄무늬는 신체의 윤곽을 불분명하게 하여 사자와 같은 포식자가 피식자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며, 무리 지어 움직일 때 포식자가 개별 목표물을 특정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겨냥하는 것을 방해한다.
을: 얼룩말의 줄무늬는 질병을 옮기거나 피를 빠는 흡혈 파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말파리나 체체파리와 같은 흡혈 파리들은 단색의 균일한 표면보다 검은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줄무늬 표면을 식별하는 데 더 어려움을 느껴 얼룩말의 몸에 대부분 내려앉지 못한다.
병: 얼룩말의 또렷한 흑백 줄무늬는 뜨거운 서식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 냉각 장치이다. 빛을 반사하는 흰색 부분과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부분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여 피부 바로 위에서 공기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이 얼룩말의 체온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두 색의 구분이 또렷할 때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ㄱ. 사자가 활동하는 지역에 서식하는 사자의 전체 먹잇감 중 얼룩말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해당 지역에서 사자가 사냥한 먹잇감 중 얼룩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관찰 결과가 있다면, 갑의 주장은 강화된다.
ㄴ. 실험용 말 모형을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만 칠했을 때보다 흑백 줄무늬를 칠했을 때 내려앉는 흡혈 파리 수가 현저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된다.
ㄷ. 기온 이외에는 서식 환경이 같은 두 지역 중 기온이 높은 지역에 서식하는 얼룩말 줄무늬의 검은색과 흰색 사이의 구분이 또렷하고 기온이 낮은 지역의 얼룩말 줄무늬의 두 색의 구분이 흐릿한 경향이 나타난다면, 병의 주장은 강화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온 이외의 서식 환경이 같을 때 더운 지역의 얼룩말에서 흑백 줄무늬의 구분이 더 또렷하다면, 또렷한 줄무늬가 **체온을 낮추는 데 유리하다**는 병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갑은 줄무늬가 사자의 목표물 식별과 겨냥을 방해하여 얼룩말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전체 먹잇감에서 얼룩말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사자가 사냥한 먹잇감에서 그 비율이 더 높다면, 얼룩말이 서식 비율에 비해 더 많이 잡혔다는 뜻이다. 이는 줄무늬의 보호 효과를 뒷받침하기보다 갑의 주장을 **약화하는 방향의 관찰 결과**이다. 따라서 '강화된다'는 평가를 '약화된다'로 고쳐야 한다.

ㄴ. X: 을은 흑백 줄무늬가 흡혈 파리의 착지를 방해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검은색이나 흰색으로만 칠한 말 모형보다 흑백 줄무늬 모형에 내려앉는 흡혈 파리가 현저히 적다면, 줄무늬가 흡혈 파리의 공격을 피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다**.

ㄷ. O: 병은 흰색과 검은색 부분의 온도 차이로 피부 바로 위에 공기 대류가 일어나며, 두 색의 구분이 또렷할 때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난다고 주장한다. **기온 이외의 서식 환경이 같은** 두 지역에서 기온이 높은 지역의 얼룩말은 색 구분이 또렷하고 기온이 낮은 지역의 얼룩말은 흐릿하다면, 냉각이 더 필요한 환경에서 냉각에 유리한 줄무늬 특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병의 주장과 부합하므로 이를 강화한다.

적절한 평가는 ㄷ만이며, 이는 ①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